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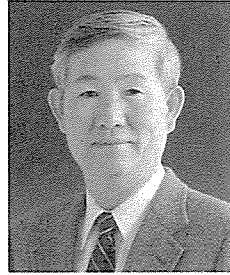
과학기술과 환경 오염

자동차 수와 대기오염은 비례

정축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가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 되돌아볼 때라 생각한다. 요즘 자동차가 많이 늘어 교통체증과 주차문제가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도로면적은 적는데 차의 수가 많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차가 생기면 그만큼 행동반경이 커지고 여러 곳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신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는 더욱 탁해져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과학기술은 좀 더 인류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지난 1세기동안 인류의 생활은 과학기술의 덕을 짝짝하게 맞본 셈이다. 그런데 자연은 주면 받는(give and take)법칙에 따라 우리가 받았던 혜택의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타고난 재질이 과학기술을 추구하는데 더 적성이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당장 인류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해볼 여유도 없이 너무도 할 일들이 많아 그렇게 정신없이 하던 일을 쫓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원자탄을 개발하거나 화학무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의 지식을 우리나라 우리 선배 과학기술인들이 자국의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공했었다. 이렇게 인류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해주는 무기 못지않게 우리는 무의식중에도 장기적으로 우리의



李 貞 默

(포항공대 첨단유체공학연구센터 소장)

요즘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교통체증 주차문제 말고도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가 자연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 연구를 거부할만한 양식을 가져야 하고 만약 그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면 환경오염 처리방법도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다.

삶의 터인 지구 자연환경을 서서히 파괴하는데 원인이 되는 과학기술의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당장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는데도 직·간접적인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은 우리가 똑바로 인식하고 수궁해야 할 일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답은 간단하다고 본다. 앞으로 모든 과학기술인은 그들이 자의이건 타의이건간에 새로운 지식의 탐구에 있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지식 또는 남이 밝혀놓은 지식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겠

는 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내가 하는 연구가 인류생활의 편리에 잠정적 기여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면 그에 대한 처리방법도 함께 연구해야 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자각이 늦춰질수록 자연계의 반발을 제지하지 못할 지경에 까지 갈 것이고 그 시한은 앞으로 1백년이나 남았을까 우려된다.

후손들에 땀땀한 환경 물려줘야

이 시한은 우리들의 증손자들이 맞아야 할 시기가 될 것이다. “나 한평생 살고 죽고 나면 후손이야 어떻게 되든 내 상관할 바가 아니지”가 우리의 태도일 수는 없지 않겠나. 물론 이런 인간 생존의 관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보다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더 많을 것이다.

과학기술인은 과거나 현재에도 타분야의 사람들에게는 ‘쟁이’로 취급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런 식의 상호관계는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솔선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가 자연환경 오염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이러한 연구를 거부할만한 양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연구가 우리 삶의 환경문제와 어떻게 연관되겠는지를 생각해야 될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후손들에게 오염으로 가득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면... ①7